

# 등록문화재 제도 확대 운영

## 불교계 근대문화유산 관리에 청신호 개정된 보호법 7월 28일부터 시행

비지정문화재로서 방치되고 있는 근현대 불교문화유산 관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1월 27일 개정·공포돼 7월 28일부터 시행될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건조물이나 시설물에 한정되던 등록문화재 제도를 모든 문화재로 확대하기로 한 것. 개정된 법은 또 사업시행자와 결탁해 지표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현행법을 악용하는 지표조사기관 제재, 정부가 담당하던 문화재 관리 업무 일부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 ▷등록문화재 제도 확대 운영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항은 지금까지 건조물이나 시설물에 한정돼 운용되던 등록문화재 제도가 모든 문화재로 확대된다(제42조 1)는 점이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제작연대가 얼마 되지 않아 지정 가치가 부족하나 문화재로서 잠재적 가치를 갖고 있는 근대문화유산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현재 146건이 등록돼 있다. 이중 불교 등록문화재로는 군산 동국사 대웅전(제64호)이 유일하다.

등록문화재 제도가 확대 운영되면 근대에 조성된 많은 불교문화재 관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충과 습기, 냉습과 그늘음으로 인한 근현대 비지정문화재들의 피해가 심각(본지 509호 13면 참조)해 보존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 소유자에 대해 세검감반 외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등록문화재 제도



공주 한 사찰의 독성도(1933), 습기와 곰팡이로 인한 훼손이 심각하다.

확대 운영을 환영하면서도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문화재와 지정문화재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하고,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기준을 연구·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표조사 기관 제재근거 마련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는 지표조사 기관의 조사결과 왜곡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점 이 눈에 띈다. 사업시행에 불리한 지표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업시행자와 지표조사기관이 결탁, 유물 분포 가능성이 높아도 그런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은 것

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문화재청장이 ‘고시’를 통해 문제기관을 제재하는 방식을 취해야 했고,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의할 수 있다”고 명시(제74조 2)해 지표조사기관 제재의 법적 근거를 확립했다.

### ▷발굴조사관련 제도 변경

발굴완료 후 2년 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발굴기관 및 대표자는 일정 기간 동안 발굴에 참여할 수 없게 했다(제44조)

발굴 매장문화재 공고 절차도 변경됐다. 매장문화재 발굴시 경찰관서가 행하던 소유자 확인 공고를 문화재청장이 하도록 해, 공고 결과가 확인되지 않아 야기됐던 국가 귀속 처리의 어려움을 덜 수 있게 했다(제46조)

### ▷시·도문화재위원회 격상

이번 개정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문화재청이 담당하던 업무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됐다.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사수가 시·도로 이양(제18조)됐고, 문화재청에 한정되던 국가지정문화재 기록 작성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관리단체 장까지 확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변경사항을 모두 기록할 수 있게 했다(제19조)

같은 맥락에서 시·도조례에 규정돼 있던 시·도문화재위원회 설치 근거를 문화재보호법에 명시,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했다. 시·도문화재위원회는 시·도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제55조 2) 박익은 기자

### ■신라 역사속 ‘닭’을 만난다

신라의 역사·문화 속의 ‘닭’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전시 ‘여명의 동물, 닭’이 국립경주박물관(관장 김성규)에서 시작했다.

닭의 해를유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전시에는 천마총 출토 ‘장군과 계란’, 전(傳)민애왕릉에서 발견된 ‘납석제십이지신상-닭’, 경주하구리 절터에서 발견된 ‘십이지신상석탑면석-닭’ 등이 출품됐다.

전시시간은 2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며, 전시장소는 국립경주박물관 미술관 로비다. (054)740-7518

### ■‘전통문화 홍보관’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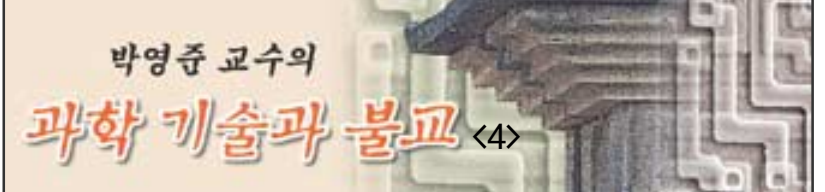


지하상가에 마련된 전통문화홍보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순직)이 을지로 지하상가에 ‘대한민국 전통문화홍보관’을 2월 3일 개관했다.

지하철 2호선(을지로입구역-을지로3가역) 연결 지하보도 유휴공간에 문을 연 전통문화홍보관은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전통 공예품을 가깝게 감상하고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106호 백산 김장옥 씨의 조선백자 및 분청사기, 중요무형문화재 제6호 서암 김진한 씨의 남포벼루, 도전 천한봉 씨의 다완 등을 비롯한 명인들의 옷칠기, 화각장, 화문석, 나전칠기, 한복 등을 만날 수 있다.

서울시설관리공단 측은 이번 전통문화홍보관 개관이 지하상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02)774-0061 박익은 기자



### 시각의 과학과 ‘금강경’

겨울에 흰눈이 내리는 것은 축복이다. 우리는 흰눈에서 지고의 순결을 느끼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싸인 눈으로 부터 더욱 확연히 드러나는 나뭇가지를 보기도 한다. 마치 시어에 의해서 세상 모습이 다르게 드러나듯이, 눈으로 새로워진 세상은 보는 것의 축복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한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는 것일까. 과학은 보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서양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초록색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태양 빛이 나뭇잎에 비치면 나뭇잎은 스스로 필요로 하는 빛은 흡수하고 나머지는 반사한다. 따라서 초록색은 나뭇잎으로서는 싫어하는 색이라 할 수 있다.

하는 뇌는 머리 뒷부분에 자리하고 있는데, 눈과 시신경 다발, 그리고 시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떼어서 보면, 원시 초기 생물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임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시각이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에 비해서 우리의 개념 구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연어를 할 때, 연어를 보고 싶어서 못 견디고 한다. 결코 목소리, 냄새 때문에 못 견디는 경우는 드물다. 오죽하면, 백문이 불여일견. ‘Out of sight, out of mind’ 라 했겠는가. 큰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눈과 뇌 집합에 의해서 구성되는 시각은 극히 제한된 과정,

## 육체적 눈은 생존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 시각의 한계 벗어나 참 모습 볼 줄 알아야

과학자들은 빛을 파동의 형태로 이해하고 있다. 마치 파도가 퍼지듯이, 빛 역시 파도와 같이 태양에서 지구로 전해진다. 파도에는 물이 높고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이 사이의 길이를 파장이 라고 한다. 태양의 빛이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는 것은 여러 개의 파장을 가진 파동 때문이다. 나무가 광합성으로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 때 사용하는 빛은 공기 분자에 가장 흡수가 안 되는 긴 파장을 가진 붉은 색이다.

이같이 시각은 작게는 지구, 크게는 우주의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다. 눈으로 들어온 빛이 눈동자에 의해서 망막에 초점을 맺게 되면, 시신경에 의해 전 기신호로 바뀌어 뇌로 전달된다. 여러 신경 다발이 다른 색깔을 분리해서 전달하면, 색, 모습, 운동 정보들이 각각 뇌의 다른 부분에서 조합되어 보는 모습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시각을 담당

제한된 방식으로만 모습을 재구성해 낸다. 우리의 눈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생존에 적합하도록 세계의 모습을 만들어 내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금강경> 18장, ‘일체동관본’에서는 보는 것의 단계를 육안(肉眼), 천안(天眼), 혜안(慧眼), 법안(法眼), 불안(佛眼)으로 나누고 있다. 육체적인 시각으로부터 발전해서, 깨달음까지 가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진화의 결과인 육체적인 눈에 의한 모양에만 집착하면 존재의 참 모습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장이다.

이유 없이 미운 사람이 눈에 보일 때, 이유 없이 마음에 끌리는 모습이 나타날 때, 시각의 한계성을 되새기도록 하자. 그리고 그 느낌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주시하는 습관을 불타다 보면, 어느새 <금강경> 가르침에 가까이 가게 될 것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 경주 원원사지 삼층석탑 보물지정 예고



원원사지 동·서 3층석탑은 높이 7m의 2층 기단 3층석탑으로 상·하층기단의 면적에는 각각 두개의 탱주와 우주가 모각돼 있고, 상

층기단 4면의 각 기둥 사이에는 짐승의 머리에 몸체는 평복을 입은 사람의 모습을 한 십이지신상이 조각돼 있다. 이 탑의 1층 탑신 4면에는 사천왕상이 조각돼 있는데,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채 악귀를 밟고 서 있는 형상이다.

문화재청은 “삼층 기단면적의 십이지신상이 격조 있게 조각됐고, 1층 탑신의 사천왕상이 매우 사실적으로 조각된 통일신라 시대(8세기 중엽)의 우수한 석탑이다”며 “이 사천왕상은 9세기 석탑의 중심을 이루는 장엄의 선례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지정사유를 밝혔다. 박익은 기자

## ‘대념처경’ 통해 초기수행법 집중 토론

### 제11회 선우논강, 2월 26일 실시

최근 초기불교의 수행법과 대승불교 수행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선사사 선우도량(대표 철오·현각)은 초기불교수행의 원형을 명확히 밝히고 부처님의 사상과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수행법의 조화로움 공존을 모색한다.

선우도량은 11번째 주제를 ‘대념처경(大念處經)’으로 읽는 초기불교의 수행’으로 정하고 2월 26일 지리산 선사사에서 공개 논의를 펼친다. 논주인 초기불교연구원 각목 스님의 3시간의 집중 강의와 종합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선우논강은

몸(身)·느낌(受)·마음(心)·법(法)의 네가지 주제로 초기불교수행법을 집대성한 <대념처경>을 통해 위빠사나라는 이름으로 실천 수행되고 있는 남방상좌부 불교의 수행전통을 집중 조명한다.

논주로 나선 각목 스님은 “남·북방의 수행법이 다른 것은 후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부처님의 수행정신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논강이 “부처님의 근본정신인 8정도 가운데 올바른 수행의 기본 바탕이 되는 ‘정념(正念)수행’을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063)636-3031 조용수 기자

# 간(肝)이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7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떨어지기까지 꼬박 8~9일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미울 토종 (민속농원)

## 지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 대상: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분
- ◆ 정원: 24명~30명 내외
- ◆ 시설개요: 본 건물 →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더폰 설치) 병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오락실
- ◆ 임박비부담: 평생회원권과 일반회원권으로 구분 자비부담
- ◆ 연락처: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보살 염불원의 특징

-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넓디넓은 부처님을 모시고 영불과 기도장으로 마음을 뒤으며 맑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서회복지원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입니다.
-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편안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부원입니다.
-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 홀로계신 시아버님, 오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 평생을 만들어 주면 돈이 바뀝니다 명단 유족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불행이 사라지고**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불행이 사라지고**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불행이 사라지고**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단유족방 051)865-9933**

전도제 49재와 결연의 처방법 전회주신이면 내내 재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단유족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복덩어리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복이 들어와 황금운으로 바뀝니다.